

건강칼럼

몸이 붓는 부종, 왜 나타날까?

우리 주변에서 손과 발, 얼굴 등 몸이 붓는 부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부종이 단순한 생리 현상에서부터 약물, 기저 질환 악화, 새로운 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등 다양한 원인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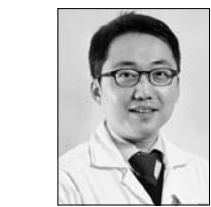
이 때문에 부종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뢰진은 어느 진료과에서 어떤 검사를 시행하고, 어떤 치료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 부종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종은 간질액 증가로 발생
우리 몸의 수분은 1/3이 세포 밖에 존재한다. 이 중 25%는 혈관 내에, 75%는 간질 내에 분포하는데 간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부종이 생기게 된다.

자세히 말하면 혈관과 간질 사이의 수분 균형은 정수압과 교질삼투압, 간질에서 혈관계로 체액을 되돌리는 림프관으로 유지되며, 이 중 어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면 혈관 밖으로 체액이 빠져 나와 간질의 수분이 증가돼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부종, 증상과 체중 변화
부종의 양상은 주로 눈 주변 부위로 나타나는 얼굴 부종과 손가락으로



김정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

로 눌렀을 때 피부의 함몰이 관찰되는 함요부종으로 나타난다. 이밖에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 비함요부종, 흉수 또는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 복수로 인한 복부 팽만, 반지나 신발 착용 불편함 등으로도 나타난다.

▲내과적 질환과 연관된 전신 부종
급, 만성 부종이 전신 또는 양측, 흉수 또는 복수 양상일 경우 갑상선, 심장, 간, 신장 질환 등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다.

내과 진료 및 혈액검사, 소변 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등의 기본검사를 통해 어느 장기와 연관된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 질환이 발견됐을 경우 그에 맞는 전문과에 추가 진료 및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

▲금성 부종이 한쪽 다리에 나타

날 경우 각별한 주의 요구
72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성 부종이 한쪽 다리에 나타날 경우에는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 사지와 관련된 급성 부종의 원인으로 붓와지염, 조직을 과사시키는 급성구획증후군, 무릎 뒤쪽과 안쪽에 물혹이 생기는 베이커 낭종 파열, 근육 파열 등이 있다.

▲만성적인 다리 부종, 정맥부전이 약 30% 차지
만성적인 다리 부종은 정맥 판막 기능 장애로 유발되는 정맥부전이 약 30%를 차지한다.

결과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지에서 발생하는 림프부종은 안, 수술, 방사선 치료,

감염, 외상으로 인한 림프관 손상, 장기간 부종 상태로 인한 림프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이차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선천적으로 림프관 발달 문제가 발생해 일차성 림프부종이 유발될 수도 있다.

치료로는 림프마사지, 압박치료, 약물치료에서부터 완전을혈제거요법, 수술적 방법 등이 있다.

▲약물 복용에 의해 부종 나타날 수도
혈압약(칼슘통로 길항제)을 복용하면서 부종이 유발될 수 있다.

이는 동맥혈 확장에 의한 말초혈관의 정수압 증가로 수분의 간질 이동에 의해 부종이 유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혈압약인 안ジオ신수용체 차단제로 변경하거나 같이 복용해 정맥혈 확장을 유도해주면 부종을 호전시킬 수 있다.

▲특발성 부종은 젊은 여성에게 흔히 발생
특발성 부종은 젊은 여성의 얼굴과 손 등에서 흔히 발생한다.

월경 전 부종과 다르게 월경 시작 후에도 부종이 지속되는데,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노제 복용을 최소 2~3주간 중단해 부종의 호전 여부를 확인하며, 저염식이, 압박스타킹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사설

고용쇼크 현상 이대로 내버려둘 것인가

전북 지역의 고용 쇼크가 심각하다. 일자리 동력이 아예 꺼져버린 것 같다. 고용정보원이 전국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전북의 경우 실망스런 내용뿐이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를 위한 직종도 드물 뿐더러 임금 수준도 낮아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귀하다는 보고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들은 서울로 가고 있고 그럴 능력이 안되는 젊은이들은 허탈없이 실업자로 남아 방황하고 있는 오늘날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희망을 말할 수 있겠는가. 앞날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회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절벽을 말하고 있는데 별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을뿐, 만족할만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고용쇼크는 다른 지역보다 전북 지역이 더욱 심하다. 군산 사태 이후 나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기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고용 불안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지만 우리 전북의 경우는 아예 추락의 연속이다. 전국에서 최악이

라는 성적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전북도가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고용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 고용 안정은 진정성이 관건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쇼크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아야겠다.

도로묵이 된 '네 장관 시대'

전북 발전을 도모할 절호의 때라고 했는데 허망하게 됐다. 전북 출신 장관 세 명이 새로 임명돼 기존의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을 포함해 네 장관 시대라며 반색했는데 말이다. 새로 임명하게 된 이들의 면면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는데 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부안 출신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 전자공학 교수가 임명됐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고창출신 진영 국회의원이 임명됐고,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익산출신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부 부지사가 임명됐다고 했는데 말이다.

특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정부부지사로 일했기 때문에 새만금 공항 건설 등 전북의 현안을 챙겨주리라 기대를 했는데 말이다.

전북 발전을 도모할 절호의 때라고 기대했지만 그게 성급했다. 보다.정부의 인물 기용 행보와 관련해서 칭찬을 했는데 그게 경솔한 것이었나보다.

전북 발전에 큰 힘을 보탬 거라 기대 했는데 그게 김치국 마시기였나보다.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해버렸으니 말이다.

전북의 뒤에 눈길을 주다보면 섭섭하다며 이쪽의 이익을 도모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말이다.

공직자 신분으로서 어찌 그리 많은 욕심 부렸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계속 전북 출신 후보자들이 나마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도 지금은 다 함께 전북 발전을 도모할 때다.

지역을 견인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사심을 버리고 지역 발전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미덕을 보여야겠다는 것이다.

지난날 발전 기회를 놓친 것을 생각하면 저으기 실망스럽다.

우리 전북이 낙후된 원인으로 정부의 편견을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도내 힘 있는 이들이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면 원인이이다.

다시 말하거나 지금은 지역 발전을 도모할 때다.

전북 발전을 이끌려는 큰 뜻이 있다면 다들 청렴결백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은 공복이라는 정신태도를 항상 배양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낙미한 이들은 반면 교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머칠 사이에 도로묵이 된 네 장관 시대라니 참으로 허망하다.

독자제언

보이스 피싱 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 피싱 범죄가 연일 전국적으로 계속되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보이스 피싱은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오는 경우와 은행, 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부정계좌에 이용되었다. 대표통장과 관련이 있다. 위협과 협박을 수반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 등 문자, 메신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현혹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의 수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과는 별개로 최근 돌궐 피싱이라는 신종 사이버 범죄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휴대폰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 행위를 한 후 그 영상을 녹화후 상대방을 협박하여 범인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을 받아 갈취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는 국가기관, 금융기관은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음으로 이러한 전화가 걸려 올 경우 일체 대응을 하지 않거나 해당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 과정을 거쳐야하며 만일 개인정보를 노출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의 콜센터 등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

또한 불건전, 출처불명의 채팅사이트를 통한 채팅 요청에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하며 불명의 문자, 첨부파일은 열어 보지 않아야한다.

고창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기 발생 사건에 대한 다양한 수사 활동을 병행하여 범인 검거에 노력하고 있다.

누구나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각별한 주의와 노력으로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때이다.

서영태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열광적 지지 받는 과이도 의장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지원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1일(현지시간) 카리키스에서 열린 대중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세계 50여개 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과이도 의장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결해 현 정부를 몰아내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